

“꿀찌만은 안돼, 65표 잡아라” ... 선거인단 363명 맨투맨 접촉

내일 더민주 예비경선 ... 당권주자들 컷오프 통과 사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1차 관문인 예비경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온 3일 선거인단을 개별 접촉하는 등 ‘컷오프’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비경선의 경우 선거인단인 당 지도부를 포함해 상임고문과 고문,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등 363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제한적인 만큼 후보들은 선거인을 한 명씩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각 경선 캠프에서는 네 후보 중 한 명이 떨어지는 컷오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65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임을 고려해 363명 중 70% 수준인 260여명이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이 중 4분의 1 이상의 표를 받으면 최하위는 면할 수 있다는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65표 확보를 위해 선거인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가 하면 틀이 날 때마다 전화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계파색이 짙은 선거인이나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중심으로 공략하는 모습이다. 일부 후보는 직접 선거인 집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예비경선 현장의 분위기도 투표

휴가철 투표율 70% 예상

무계파·부동층 공략 안간힘

연설 준비에도 심혈 기울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설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후보 캠프는 선거인단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계파논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판단, 연설문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활성화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뒤늦게 경선에 뛰어드는 이종걸·김상곤 후보는 예비경선 통과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 후보 측은 “늦게 출마 선언을 한 데다 원외인자라 컷오프에 신경 쓰면서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며 “전화를 열심히 돌리고 있고, 더민주가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호남이 중요하다 판단하고 그쪽으로는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개표함을 열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감각이 선거기간 하지만 두 후보(송·추)보다는 좀 더 예비경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5일 실시하는 예비경선이 ‘발등의 불’이기는 하지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27일 열릴 본선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민주 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여론조사 25% 비중으로 치러진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의 경우 지역위원회별로 균등하게 30명씩 배분을 하고 있다.

결국 지역위원회 수가 제일 많은 수도권과 전통적으로 대의원의 결속력이 높은 호남의 표심이 본선 승부를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대의원과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후보들은 온라인 당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단에 들어온 대의원의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미에 후보의 경우 이날 팟캐스트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 네티즌들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도봉갑 대의원 대회와 경기 시흥을 대의원 대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고, 김상곤 후보는 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호남 민심을 다독였다.

비주류 인사인 이종걸 후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계파결정이 당의 최우선 과제인데, 다른 후보들은 오히려 계파를 더 보존시킬 위험이 있다”며 비주류 진영의 결집을 시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1913 송정시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연일 호남총리론을 언급하고 있어 이날 휴가차 광주를 찾은 황 총리와의 우연한 만남이 주목을 받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황교안 총리 ‘여름휴가’ 담양 죽녹원·광주 송정시장 방문

여름 휴가중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휴가 첫날인 3일 전남 담양과 광주를 찾았다.

이날부터 5일까지 가족과 함께 사흘동안 휴가 일정에 들어간 황 총리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호남을 방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전남 담양을 방문해 메타세콰이어길, 죽녹원, 소쇄원 등을 둘러봤다.

오후에는 광주 광산구의 창조경제현장인 ‘1913 송정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에서 떡과 과일, 쇠고기 등을 구입해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1913년 세워진 송정전통시장은 창조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 등의 지원을 통해 17명의 청년 상인이 유입돼 활기를 띄고 있는 곳이다.

특히 황 총리는 송정시장에서 이날 민생

투어 중 광주를 찾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나 주목을 받았다.

황 총리는 4일에는 충남 부여를 방문, 궁남지·백제항 등의 백제문화단지를 둘러 보고 휴가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충남 청양군 ‘청양 알프스마을’을 방문해서 지역축제 현장체험을 하고 지역특산품을 구입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등대·수영복 ... 그리운 여름날 바닷가



김은영의
‘그림 생각’

(164) 해변의 여인

세상사가 아무리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도 7월 말 8월 초가 휴가철의 절정인가 보다. 모두가 길 떠나는 여름날 도심은 확실히 한산하고 공향, 철도역, 버스 터미널은 넘치도록 붐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피서지 인기곡만 들어도 마음속엔 파도가 일렁인다.

오래 전 유행했고, 여름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노래 ‘해변의 여인’을 들을 때마다 피카소(1881~1973)의 작품 ‘해변의 여인들’(1918년 작)이 동시에 떠오른다. 본다는 것은 단지 시각만의 작용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다른 감각들도 함께 동원되는 공감각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어서 노래에서 그림이, 그림에서 노래가 잇대어 연상된다.

피카소가 1918년 프랑스의 아름다운 해안 비알리츠에 머물면서 그렸던 ‘해변의 여인들’은 쇠라와 루소, 보티첼리와 앵그르 등 몇몇 화가의 화풍을 작가가 나름대로 결합하여 그렸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대생 교사였던 피카소의 아버지가 자신보다 훌륭한 화가가 될 것을 예견하고 자신의 물감과 붓을 주고 절필했던 것은 피카소 나이 열 살 때, 작가의 고백처럼 “결코 어린아이처럼 대생한 적이 없었고 열두 살 때 이미 라파엘로처럼 그렸다”는 피카소이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화가들을 따라했고 그 연후에야 대가들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신과 같은 재능을 지닌 천재 앞에서 안도하는 대목이기도



피카소작 ‘해변의 여인들’

하다.

화면 속 등대, 방파제, 흰 돛단배와 수영선, 푸른 하늘과 구름을 보니 여름날의 바닷가가 그리워진다. 밝고 선명한 색상의 수영복을 입고 바닷바람을 황홀하게 맞이하고 있는 해변의 여인들처럼 언제쯤 ‘물 위 황혼의 중이배’를 맡 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이 되어볼 수 있을까.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도 노래도 좋아 ... 정부 이제 결단 내려야”

김무성 전 대표 광주서 대학생 미팅 “제왕적 권력구조 바꿔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3일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민생투어 3일째인 이날 광주를 방문, 전남대 인근 ‘광주 청년 아카이브 센터’에서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권력은 독점할수록 작아지고, 국민은 반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가 전국 민생투어를 벌이며 개혁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내년 12월 대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지금에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왕을 뽑는다”면서 “진 쪽에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현 정권이 망해야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선거에 진 정당에도 권력을 나눠주고, 여야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혁은 일단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가고, 그 이후에 4년 중임제, 내각제 등의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광주 북구 운정동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가사도 노래도 좋다”

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 노래로 매년 국론이 분열되면 안된다”면서 “보수우파가 같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우파도) 노래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같이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발언이 보도되면 (보수우파 쪽에서) 엄청나게 비판하겠지만, 5·18 민주화정신이 훼손되고 분열되면 안된다는 마음 뿐이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이날 선전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설립한 공장을 방문해 선전을 기린 동상과 공장을 둘러보며 대학 시절 방학 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서 전국의 프랜차이즈를 만날 기회!

2016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6 8.19(금)~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8월 18일까지 온라인사전등록 무료

무료1:1가맹상담 기회
예비창업자를 위한 무료세미나

